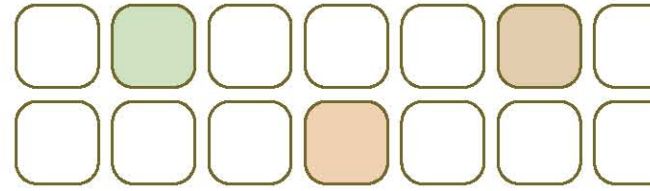


VD RADAR



벤처관련

중기청, 협업사업 지원 주관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이 서로 협업체를 구성해국외 대형수주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하고 기술수명이 짧은벤처기업도 다른 판매·생산 법인과 하나로 통합돼 신사업을 조기에 현실화할수

있도록 하는협업사업을 중기청과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주관하고있다. 생산 위탁형과 기술 용·복합형, 위탁 연구개발형, 통합 생산형, 지식 서비스형으로 구분되는 이 사업은민간 차원에서는 시단법인 한국CMS(전문기능연구협업협회)가 2004년부터 3년간협업사업을추진한 바 있다

올해도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이 연중수시로 계속되고 있다.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협업사업계획서와 승인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협업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

융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50억 원 늘어난 250억 원(변동금리 연 5.1%)으로 대상 업체는 20억~30억 원씩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부처별 배분 확정

올해 정부가정보통신산업 기술 개발을위해 출연할 정보통신진흥기금 7852억 원의 부처별 집행비중이 배분·확정됐다. 특히 이 중 20% 가량인 1600억 원을 지식경제부와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쓰는공조 체제를첫 기동한다.

지경부는 공동 집행 금액 외에도 전체 64%인 5040억 원까지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돼 정보통신 R&D 및 기금 운용을 사실상 총괄하는 부처로서의 지위를 재확인했다

올해 부처별 기금 독자 추진 규모는 방통위가 880억 원, 문화부가 260억 원, 행안부가 40~50억 원등이다.

중소기업 문화경영 지원센터' 개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함께 중소기업의 문화경영을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문화경영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번 중소기업 문화경영 지원센터는 지난 5월 15일 중앙회와 문화부가 체결한 업무협력 합의서 공동추진과제중 첫번째 결실이다

『중소기업 문화경영 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은 △문화경영 컨설팅 및 교육 △

중소기업 문화경영실태 조사△문화기업 발굴·홍보등이며 이외에도 문화특공대 지원, 문화기업선정·시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소개 등의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암DMC 벤처 입주 시작

서울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 첨단산업센터 에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시는 7월 15일까지 드림스톡·알트론 등 30개의 우수중소벤처기업이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주는 평균 3.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기업들이다. 시는 또 이달 중순까지 2차 모집을 통해 60개의 우수 중소기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총 90개사가 입주할 DMC 첨단산업센터는 디지털 미디어 및 콘텐츠 IT·소프트웨어 관련업종의 단일센터로는 국내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국제 LED EXPO & FPD KOREA 2008' 6월 24일 성황리 폐막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국내외 188여 개 업체가 참여한 국제 LED EXPO & FPD KOREA 2008이 폐막됐다.

미국광산업협회 회장 마이클 레비박사, Bue LED의 창시자 슈지 나카무라 교수 등 전 세계 석학들이 대거 방한한 이번 행사는 21세기 新 성장동력산업인 LED 및 FPD응용분야의 경쟁력을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전시면적 15,000m²(2천텍스 3, 4홀), 411 부스 규모로 마련된 올해 행사는 삼성전기, 금호전기, 목산전자, 킹브라이트, EverLight, 루멘스, 닛산화학, 다우하이텍실리콘, 나산니레코 등의 국내외 LED, FPD 전문 업체들을 비롯 국내외 188개 업체가 참여했다.

올해 전시회의 경우 2006년, 2007년에 이어 3년 연속 지식경제부 및 경기도 국내무역 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유망전시회로 선정되어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 상장희망기업 CEO 초청 세미나 개최

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이정환) 코스닥시장본부는 6월 25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우량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코스닥 상장희망기업 CEO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우량 중소·벤처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내외 주요 지방경제거점을 중심으로 지방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개별 우량

기업에대한 방문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방설명회는 상반기에 광주(6월), 수원, 대전(6월)에서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부산, 대구 등 5개 지역에서 개최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상징할 의사가 강한 중소·벤처기업의 CEO에게 상징제도 및 상장을 통한 기업상장의 성공사례 등 안내를 통해 상징의욕을 고취하여 국내우량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다.

코트라, 캐나다서 IT쇼케이스 개최

코트라(KOTRA)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코리아IT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트라 토론토 무역관이 캐나다의 세계 1위 IT유통기업인 인그램 마이크로(Ingram Micro)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며, 인그램 마이크로사의 현지 주요고객 100개사와 유진로봇 등 한국기업 11개사가 참가한다.

캐나다는 미국과 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지역인 만큼 코트라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 최대 IT산업지대인 북미시장 진출의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산업IT 융합포럼」 출범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은 6월 24일 제1차 「산업IT 융합포럼」을 열고 주력 산업과 IT산업의 융합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산업IT 융합포럼」은 지식경제부로부터 IT산업 진흥이 일원화 되면서, 과거 소관 부처가 달라 IT와 주력 제조업간 교류가 미흡했던 점을 극복하고, 정부가 「토론의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출범의 의미가 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과 IT업계 간의 융합논의가 「산업IT 융합포럼」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내년에는 주력 산업과 IT 융합의 상시화를 지원할 「산업IT 융합센터」가 2~3개 지정될 전망이다.

산업IT 융합센터는 IT 융합의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IT 융합 분야 연구·인력 양성·테스트베드 등을 지원하는 센터이다.

APEC 중소기업 기술이전 워크숍 개최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중소기업 혁신 및 기술이전 서비스에서의 지원 기관 역할'이란 주제로 (APEC 중소기업 기술이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와 이탈리아의 국제중소기업네트워크협회(이하 INSM)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국내외 중

소기업과 중소기업 기술이전 지원기관 중사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혁신 및 기술이전 서비스 기법과 역량 함양, 유럽 선진국의 성공사례 및 전략 등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력 위해 미국대학 기업이노베이션 유치

경기도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텍사스주립대학의 '중소기업이노베이션 센터'가 들어온다. 경기도는 5월 30일 텍사스주립대

와 기업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난해 10월 31일 김문수 지사가 미국 텍사스주립대를 방문해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텍사스주립대는 '경기사무소'를 광교테크노밸리 경기 R&DB센터 빌딩에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기업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텍사스주립대 경기사무소에는 기업이노베이션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사업을 총괄하고 미국 현지의 텍사스주립대 경기기업이노베이션 사업을 기획·총괄하는 전담팀이 구성된다.

경기기업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모집'·'기술평가'·'상업화전략체제'·'국내훈련'·'미국 현지훈련'·'미국시장진출' 등 과정으로 운영한다.

6월부터 희망업체 모집에 들어갔으며 9월에는 텍사스주립대 경기사무소가 문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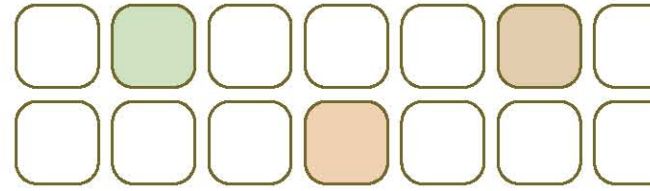
한편 미국 텍사스주립대학은 오스틴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1884년에 개교한 124년의 역사를 가진 명문대학이다.

충북도, 중소제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

충북도는 비수도권 제조업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 하고 고용창출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올해 1월부터 중소제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07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기간 중 비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도 제외)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에 의하여 창업했거나 창업할

VD RADAR



중소기업으로 공장 등의 건축비, 기반시설 및 시설장비에 대한 창업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임대공장의 경우는 임대비용 제외하고 3억 원 이상 투자한 기업인 기업이고, 창업투자 보조금 신청시점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증 보유 기업이다.

지원내용으로는 제조업 창업에 투자한 금액의 10%를 10억 원 한도 내에서 국비와 도비로 지원하며 지급방법은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www.changupnet.go.kr)하면 현장평가와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부산시, 그린부산창업투자회사(사주) 공식 출범

부산시가 그린순해보험주과 손잡고 지역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설립하는 그린부산창업투자(사주)가 6월 23일 해운대 피라다이스호텔에서 해남식 시장을 비롯해 조길우 시의회 의장, 출자기관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 출범했다.

그린부산창업투자(사주)의 설립자본금은 90억 원으로 그린순해보험(주), 부산시를 대리한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우증권, 엠게임 등이 출자했다. 그린부산창업투자(사주)는 부산시 중구 중앙동 무역회관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부산의 전략산업 분야인 중소벤처기업들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지역 대학 벤처동아리 창업열기 후끈

전라남도가 대학생들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우수 창업동아리를 발굴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도에서 지원한 11개 대학 43개 동아리를 대상으로 운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아이템으로 창업한 11개 동아리가 연간 1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매출실적을 올렸다.

이중 순천대 (주)수프로는 친환경 기호화분 제작 기술로 연간 4천만원 매출 실적을 올렸으며, 최근 전남특허스타기업으로 선정돼 전남도와 전남지식센터의 특혜지원을 받게 됐다.

또 전남도립대 '생활디자인제작센터' 동아리는 올해 학교기업으로 선정돼 교육부로부터 4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그밖에 전남대 '리온샵 커뮤니케이션'은 홈페이지 제작으로 연간 5천만 원 수익을 올려 동아리 중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다. 전남도는 올해도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전남도내 유통동아리 발굴에 중점을 뒀으며 도비 2억원이 운영평가 신청 8개 대학 38개 대학 벤처동아리에 지원된다.

춘천시, 기업유치 대처 위해 4곳 시가화 예정 용지로 새롭게 지정
춘천시 등내면 학곡리, 남산면 수동리, 신동면 혈동리, 동산면 봉명리 일원 등 4곳이 시가화에 예정 용지로 새롭게 지정된다.

춘천시는 2020년 춘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마련, 6월 17일자로 공고하고 7월 1일 오후 2시 강원정보문화진흥원 1층 세미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갖는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춘천~서울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춘천의 관문이 될 등내면 학곡리 일원 389,414㎡가 보전용지에서 주거형 시가화에 예정 용지로 변경된다. 또 더존IT그룹과 산하연구소 수도권 소재 소프트웨어 유망벤처 기업이 집단으로 들어서는 남산면 수동리 일원 330,800㎡와 제1전략산업단지지가 조성되는 신동면 혈동리, 남산면 행촌리 일원 672,700㎡, 제2전략산업단지 부지인 동산면 봉명리 1,067,040㎡도 공급용 시가화에 예정 용지로 새롭게 지정된다.

광주디자인센터, 26일 하우징제품 상설전시관 개관

하우징제품 종합상설전시관이 호남지역 최초로 광주에서 문을 열었다. 광주디자인센터 하우징지체혁신사업단은 6월 26일 디자인센터 3층에 광주지역 하우징지체산업육성혁신시스템구축사업 상설전시관(이하 하우징전시관)을 개관했다.

이날 개관한 하우징전시관은 지역 하우징지체 관련 제조업체의 디자인지원을 통해 개발된 우수 제품을 전시하고, 비즈니스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생활속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하우징 관련 소재와 제품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전망이다.

디자인센터 3층 274㎡에 구축된 전시관은 욕실용품, 주방용품, 조명기기, 커튼, 방화문 등 각종 하우징 관련 제품과 전시물 등 100여 점이 전시된다. 주요 전시제품은 2008년 굿디자인상을 수상한 (주)동영산업의 한글캘리그래피 도어, (주)대방포스텍의 앙드레김라이팅, (주)은하의 신개념렌지후드 등 지역 우수 중소기업 제품들을 포함하고 있다.



ETRI, 해외 IT인력 본격 유치 나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최문기)은 IT 연구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도, 미주, 유럽 등의 해외 우수 IT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50여 명의 인력을

신규로 채용키로 하고 지난 5월초 인도 현지에서 25개 연구 분야에서 28명의 연구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냈다.

아울러 국제공동연구를 위해 양해각서를 교환한 미국 스탠퍼드 대학과 영국의 요크대학 등을 대상으로 인력 모집에 나서기로 했으며 국가별 채용박람회나 대학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인재 유치 활동도 벌일 방침이다.

ETRI의 이같은 행보는 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인데 ETRI에는 현재 30여 명의 해외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도, 미주, 유럽 지역이 43%,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인력이 57% 가량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음악 기술 국제표준화 추진

ETRI는 '인터랙티브 뮤직(Interactive Music) 응용포맷 기술'을 차세대 디지털음악의 국제표준으로 삼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이 기술은 ETRI가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오디오 기술로 이용자가 보컬, 악기 등 음원을 자유자재로 변형해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 수 있게 한다.

예컨대 이 기술을 이용하면 노래의 반주음을 모두 없앤 뒤 보컬만 감상해 볼 수도 있고 다양한 악기의 음원을 추가해 독특한 노래로 재탄생시킬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는 'MUSIC 2.0'라는 상용화 제품이 출시됐으며 이미 많은 인기가 수들이 음반 제작에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인터랙티브 뮤직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선정되면 디지털 음악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고 로열티 수입도 예상된다.

지스트, 암 치료용 나노의약품 개발

지스트(GIST,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진이 나노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암 진단 및 치료 기술을 개발했다. 특히, 새로 개발된 나노의약품은 기존 항암제에 비해 치료효과는 더 우수한 반면 부작용은 훨씬 적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생명과학과 전상용 교수와 유미경 박사과정 학생은 암을 자기공명영상으로 진단하고 동시에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나노기술을 개발했다. 연구논문은 화학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독일 화학지 응용화학안게켄데 케미스트리 국제판 *Angew. Chem. Int. Ed.* 인터넷판 최근 호(2008년 6월 12일 자)에 게재됐다.

* 웹주소 : www3.interscience.wiley.com/journal/119876592/abstract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암정복사업에 의해 지원됐고 광주지역에 기반을 둔 벤처기업에 기술이전돼 현재 상업화를 진행 중이다.

전자레인지 40대 분량 마이크로파 발생장치 국내 최초 개발

가정용 전자레인지 30~40대가 동시에 동작할 때 발생하는 마이크로파를 한꺼번에 출력할 수 있는 고출력·고효율 마그네트론 발전기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전기연구원(원장 박동욱 www.keri.re.kr) 테라헤르츠파 전문연구팀 정순신·김대호 박사팀은 최근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과 전기연구원 자체 지원을 통해 (주)스펙, 서울대학교(위탁) 등과 공동으로 연속출력 30kW, 효율 약 80%의 고출력·고효율 마그네트론 발전기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마그네트론 발전기는 전자레인지, 조명기기를 비롯해 대형식품조리 및 해동, 자외선광원, 입자가속기, 레이더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고출력·고효율의 마이크로파 발생 장치이다. 나노물질 합성, 다이아몬드 코팅, 페타이어 지원, 화, 바이오디젤 합성, 신약 합성, 무선전력전송 등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번에 개발된 발전기의 연속 출력 30kW는 가정용 전자레인지 30~40대가 동시에 동작할 때 발생하는 마이크로파(microwave)의 출력에 해당한다.



신생 VoP업체 '와이맥스' 미국 서둘러

미국의 무명 인터넷전화(VoP) 벤처업체가 최근 컴캐스트, 버라이즌 등 대형업체를 제치고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와이맥스라는 인터넷전화업체가 그 주

안공인데 일반 유선전화를 PC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VoP서비스 매직잭(MagicJack)으로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것.

일종의 인터넷전화 어댑터인 매직잭의 성공 비결은 다른 아닌 무료 통화, 매직잭을 구입하면 미국이나 캐나다 내에서 거는 전화는 모두 공짜다. 해외에서 미국으로 걸 때도 미국 전화번호를 지정받아 무료로 통화할 수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스카이프와 서비스는 유사하지만, 1년간 무료 통화서비스를 포함해 매직잭 단말기의 가격은 40달러로 스카이프보다 저렴하다.